

내달 '윤달' 앞두고 분주해진 장의업계

〈10월 24일~11월 21일〉

광주 영락공원 이장·개장 유골 화장 문의 폭주

182년만의 '윤9월' 장의용품값 20~30% 올라

182년 만에 찾아온 '윤9월'이 다음달 하순 시작되면서 장의업계가 바빠졌다.

추석 연휴 끝나고 올해 윤달(10월 24일~11월 21일)이 다가오면서 조상묘 이장(移葬)과 개장 유골 화장 신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영락공원 문의 폭주=17일 광주영락공원사업소(이하 영락공원)에 따르면 다음달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윤9월'을 앞두고 개장 유골 화장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평균 50~60건 가량 걸려오고 있다. 평소엔 하루 고작 1~2건인데, '윤9월'을 앞두고 문의가 쇄도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게 영락공원 측의 설명이다.

영락공원은 '윤9월'이 시작되면 하루 평

균 50~60건(일반 화장 제외)의 개장유골 화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평달 기준 하루 평균 개장유골 화장건수 1~2건 보다 최대 60배 높은 수치다. 지난 2012년 4월 윤달(양력 4월 21일~5월 20일) 때 하루 평균 40~50건의 유골을 화장했다.

이에 따라 영락공원은 근무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이 기간엔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기계고장에 대비한 예비화장로 1기를 제외한 전체 화장로 8기 중 2기를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로 사용할 계획이다.

공원 관계자는 "다음 '윤9월'이 2109년에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 윤달

음력에서 평년의 12개월보다 1개월 더 보태진 달을 말한다. 양력으로 1년은 365.2422일이므로 한 달을 29.53059일로 계산하는 음력 12달은 양력보다 약 11일이 짧다. 그러므로 3년에 한 달, 또는 8년에 석 달의 윤달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음력에서 윤달을 전혀 넣지 않으면 17년 후에는 5.6월에 눈이 내리고 동지·선달에 더위로 고통을 받게 된다.

윤달에는 사람을 감시하는 하늘과 땅의 신(神)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탓에 곳곳에 일을 해도 액(厄)이나 해(害)가 없다는 속설이 전해지면서 이장을 하거나 수의를 마련하는 풍습이 있다.

이런 윤달을 많이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의용품 부르는 게 '값'=장의업계에 줄거용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이용자들

은 부담이 크다.

'윤9월'을 앞두고 서둘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옷돈을 쥐고 낱자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업체측의 염포(?)에 이장 및 장의용품 비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이장·장의용품업체는 대략 100여 곳. 이날 현재 광주 A장의용품업체에서 내놓은 장의용품 가격은 수의(100만원)·유골함(30만원)·위패(4만원) 등이다. 이는 평달 보다 20~30% 오른 금액이다.

이장비용도 마찬가지다. 전남 B이장업체의 경우 165.3㎡(50평) 기준 이장 비용이 500만~600만원, 인건비 한 명당 20만원씩 10명(200만원)·굴삭기(50만원)·운구차(35만~50만원)·비석(20만~40만원) 등이다. 1년 전 같은 규모로 이장을 한 박모(65)씨가 쓴 이장 비용이 35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50만~200만원 가량 오른 셈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美 외교관과의 대화'

17일 광주시 북구 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에서 열린 '미국 외교관과의 대화' 행사에 참가한 주한미국대사관 앤서니 닐 트란카나 외교관과 시민들이 영어 교육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올해로 문을 연지 10년째인 아메리칸 코너에선 매달 한 차례씩 독서 캠프·사진전·영화 축제·미전문가와 화상회의·영어 수업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기계 교통사고 매년 급증...전남 최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49건이 발생해 227명이 사망하고 135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379건(45명 사

망), 2012년 407건(83명 사망), 2013년 463건(99명 사망)이 각각 발생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69건(63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39건(37명 사망), 경남 143건(21명 사망), 충남 124건(27명 사망), 경기도 99건(19명 사망)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등록된 농기계

대수는 10% 줄었는데 1만대 당 사망자수는 오히려 28% 증가했다.

또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주로 모내기철(5~6월)과 수확철(9~10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농기계는 안전벨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데다 운전자 상당수가

주승용 의원, 최근 3년간 자료 분석 전국적 1249건 발생 227명 사망

고령의 농민들이라 인명사고로 이어져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7배 이상 높다"며 "당국은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농촌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고령화에 따른 효과적인 맞춤형 농기계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7, 해질 18:36, 달출몰 00:47, 달몰림 14:54

호린 가을 하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17/25	보성	흐림	16/23
목포	흐림	18/25	순천	흐림	19/25
여수	흐림	20/23	영광	흐림	16/25
나주	흐림	19/25	진도	흐림	16/24
완도	흐림	18/24	전주	구름많음	16/26
구례	흐림	16/25	군산	구름많음	16/26
강진	흐림	16/24	남원	구름많음	15/25
해남	흐림	16/24	혹산도	흐림	18/22
장성	흐림	15/26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북~북동	0.5~0.5	북~북동	0.5~0.5
	남해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북동~동	1.0~2.0	북동~동	1.0~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59	03:04	22:14	15:04
여수	00:52		05:02	
	00:00	17:48		

◇주간 날씨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	☀	☀	☀	☀	☀	☀
17/28	16/28	17/28	16/28	16/27	17/26	18/25

◇생활지수

식중독	57
운동	50
빨래	60

미쓰비시중 '강제징용 피해' 법원조정 거부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광주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1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미쓰비시 측이 화해를 위한 조정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미쓰비시는 광주고법이 제안한 조정 방안에 대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고, 쟁점이 형평 해석에 관련돼 있어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은 이와 관련, "기존 입장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식의 내용만 유선으로 전해졌을 뿐 서면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공식 문서가 접수되지 않은 만큼 오는 25일로 예정된 조정 기일까지 지켜본 뒤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남대 의대 수시모집 중단...70명 지원 취소

전북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가 지난 10월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을 해왔으나 법원 결정으로 중단된 큰 헌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서남대 교수들이 제기한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진행됐던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이 16일부터 취소됐다. 서남대는 당초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의예과 수시모집에는 7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려면 학교법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당시 법원이 없다고 교수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소송 신청 자격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수시모집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수시모집 지원서를 제출한 70명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학교 상황을 설명한 뒤 지원자가 직접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베트남주 2014년 11월 (예정) 중도금 무이자 공금연적 (㎡) 78/75

선착순 마감임박

한자리에서 북구의 모든 실속을 누리려!

1. 실입주금 2천만원(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3. 용봉C 입법항 공사 예정불편한 교통환경의 해소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 요인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2,000~4,000만원대)
5. 일곡정수아파트 총 1,400세대 분양전환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위치 용봉(순천방향) 용봉현대아파트 앞

문의 062-385-3080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경품 행사

기간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일(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선물1 가생품(택1)
카드결제권, 핸드폰 충전기

선물2 계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풍경지갑, 세미프린트 냄비, 굿스락 일대일기프트

선물3 계약시 경품 응모권 증정

- 1등 | 황금열쇠 순금 1냥(1명)
- 2등 | 가전제품 100만원 상품권(2명)
- 3등 |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3명) [동반 1인 포함]
- 4등 |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 5등 |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 중복 당첨시 상위 품목으로 증정,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가전제품 상품권 1,000,000원

※ 상품은 이미지와 다를수 있습니다.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223-7217, 223-7218(충장로5가 입구)